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걸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11)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2. 바른 것과 향량함
3. 실질적인 체험
4. 오류에 대한 학자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6. 죄 용서함과 생명을 주심
7. 아뢰시고 귀한 소식
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9. 내 모습 이대로
10. 완전한 교제

11. 정죄의 직분

이르게 된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율법과 은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였다. 율법과 은혜를 언급하게 되면 일단은 신학적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매일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과 상관이 있다. (고전 1:18) 무엇보다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주시는가? (롬 11:20)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은혜이며, 셋째는 율법과 은혜를 섞는 것이다. 첫째 율법에 근거한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행한 것 또한 행지 않은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받아주신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는 율법에 근거한다. (출 19:5~6) 둘째로 은혜에 근거한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전적으로 받아주신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요 6:28~29)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선물을 받는다. (고전 1:30) 셋째는 율법과 은혜를 섞어 보려는 시도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은혜로 가져 주시는 구원, 전적인 사랑과 용납하시는 메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린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없음을 증언한다. (롬 11:6) 이것은 갈라디야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갈 3:1~3)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분명하게 들린다. (갈 3:2)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을 때를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항상 들려오는 메시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항상 초점이 놓여 있을 뿐이다. 로마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롬 4:15) 즉, 고속도로 속도제한이 정하여져 있지도 않는데 경찰이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정차시키고 속도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오직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롬 5:13)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롬 3:19~20)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 2:10) 갈 3:10 율법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문제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나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 율법 안에 있는 정신과 뜻까지도 지적하였다. (마 5:21~22, 27~28)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하였다. (마 5:48)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 역시 안팎으로 완전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라는 기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불법자임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저주 아래 있음을 본다. (고후 3:6~7, 9)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갈 3:25)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롬 6:23, 8:1) 이것이 신약의 명령과 율법이 다른 점이다.

율법과 은혜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적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 9:17) 신약은 구약의 율법 형태 안에 담겨져 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정반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이 합쳐질 수가 없다. 합쳐질 때 율법은 율법의 원칙인 심판과 또 두려움을 잃게 되고, 은혜는 은혜의 원칙인 자유와 기쁨을 잃게 된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의 심각함을 느끼는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저주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율법이 나빠져야 한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롬 10:4)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로마서에서 발견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6:14) 아멘.

지난 주일(7일), 제6차 성찬식과 함께 교회설립 55주년을 기념하며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고전 11:23~26) 충현교회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였습니다. (마 16:18) 이 소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였습니다. (갈 6:14) 지금의 자신이 십자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참 신자이신 추석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과 친지를 앞에서 확실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 13:5)

모든 예배와 집회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영적 생명력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한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마가복음(월요일) · 에스겔(화~주일) 강해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수요일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성경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당장 이번 주 수요일(17일)과 토요일(20일)에 있을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딤후 1:3)

WITNESS OF PETER

⁽¹²⁾Therefore, I will always be ready to remind you of these things, even though you already know them, and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truth which is present with you. ⁽¹³⁾I consider it right, as long as I am in this earthly dwelling, to stir you up by way of reminder, ⁽¹⁷⁾For when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such an utterance as this was made to Him by the Majestic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pleased"—⁽¹⁸⁾and we ourselves heard this utterance mad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holy mountain. (2Peter 1:12~18)

The witness of Peter is not some made up story or guessing game; it is a fact based on actual experience. He saw Jesus. He lived with Jesus. He loved Jesus. This man gave up his life to follow Jesus and had wonderful experiences with Him. It is true that he suffered failure, but he repented when he met the resurrected Christ. He even saw Jesus ascend into heaven, and after that he prayed for ten days and received the Holy Spirit. From that moment on he spent all the remaining days of his life as an apostle, a servant of Christ, "Simon Peter, a bond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2Pet. 1:1) His transgression experience strengthened his precious faith. His declaration of God was a firm foundation. His mountaintop experience, as recorded in today's Bible passage, indicated the mission of Christ. Indeed, the voice of heaven silenced the voice of critics on earth. If your pride and vanity lead you to think that you are great, then you cannot be a witness of Christ. How can we witness Christ?

If you want to witness Jesus to others then you must follow Jesus, and only Jesus. Peter said, "For we did not follow cleverly devised tales when we made known to you the power a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v. 16) Peter, James, and John were led by Jesus to a high mountain where they witnessed His transfiguration. All of them had to have faith in Jesus before this experience could happen. They left their everyday jobs to follow Him, "And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Mk. 1:17~18) They never asked about money, working conditions, family and friend responsibilities, or vacation time. They surrendered all to Him and He led them to higher ground. Following Christ requires giving up your way and will, so that God's way and will can be done. Jesus tells us how we can follow Him,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Mt. 16:24) If you will just drop your opinions, then you too can experience wonderful things. Are you willing to follow Jesus all the way?

If you want to witness Jesus to others then you must keep your spiritual eyes open. Peter said,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v. 16) Peter witnessed Christ's majesty. How

could he ever forget such an event? Matthew 17:2~3 describes it as such,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and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garments became as white as light. And behold, Moses and Elijah appeared to them, talking with Him." Absolutely Peter's witness is that Jesus is real, He is the Master, Savior, and Lord. He heard God's voice from heaven say,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pleased; listen to Him!"(Mt. 17:5) Peter loved this place and even asked Jesus if he could build three tabernacles here. We always make this mistake, trying to put in our own will and not God's will. Christ was transfigured before him, the Lord was clothed in light, and he saw Moses and Elijah talk with Jesus. Peter was so moved by this experience that he wanted to start a building program. We must seek God's will or we will miss His plan for our lives. Peter never forgot this miraculous moment; he claimed this experience as proof of his authority to minister. Are you going to open your spiritual eyes to witness?

If you want to witness Jesus to others then you must listen to the Lord, "For when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such an utterance as this was made to Him by the Majestic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and we ourselves heard this utterance mad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holy mountain."(vv. 17~18) Moses and Elijah talked with Jesus about His pending cross and death, "who, appearing in glory, were speaking of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Lk. 9:31) All three of them focused on the cross. When we focus on the cross it brings to us a mountaintop experience. Peter, James, and John heard from God in heaven for them to listen to His beloved Son. We must be sensitive to what God says to us about His Son. All too often we do not listen to Jesus but rather ask from Him many silly things. God wants us to listen. Are you going to pay attention to Him?

My dear friend, Peter's witness was to follow Jesus, keep your spiritual eyes open, and listen to Him. You can only do this through your faith. Please do not harden your heart through worldly living, but let God soften it with His Holy Spirit so that you too can witness Jesus to others. I do not think that there is anything more noble or worthy than to witness Christ. Amen. 

베드로의 증언

⁽¹²⁾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¹³⁾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¹⁷⁾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¹⁸⁾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12~18)



김경환 목사

베드로의 증언은 꾸며낸 이야기나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그분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뼈아픈 실패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10일 동안 기도한 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은 생애 동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행 1:1) 그의 실패가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확고한 기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변화산상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비판자들의 세상 목소리를 잠재워 버렸습니다. 아직도 자존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령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16절)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하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해왔던 자신들의 일들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막 1:17~18) 그들은 한 번도 돈이나 작업여건,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의무, 여가시간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고 주님은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의지를 버리는 완전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영의 눈을 떠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16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잊을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2~3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님은 진짜이고, 그분은 주님이시며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초막 세 개를 지어도 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베드로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빛의 옷을 입은 듯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 너무나 감동받은 나머지 즉시 초막 건축계획에 착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에 대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17~18절) 모세와 엘리야는 임박한 십자가와 죽음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질 것을 말할 새”(눅 9:31) 그들 세 사람은 온전히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변화산상의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려고 힘쓰기보다는 쓸데없는 것들을 주님께 구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삶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

수요일예배 메시지(2008. 9. 10.)

악속 위에 서자

(여호수아 21:43~45)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였고 악속에 따라 죽었다. 아마도 그가 요단강을 건

넌다면 은혼은 무시되고 통통 율법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모세는 전설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순지자인 것이다. 특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뒷받침한다. (눅 9:30~31)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한다면 매우 형편없어 보였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한낱 종을 비꼴하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정복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수 1:1~3) 순한 난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 삶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순간 절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이다. 악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청신을 차리자. (벧전 5:8)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벧전 5:9) 매순간 믿음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십자가를 붙들자.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가나안정복을 앞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수 1:1~2) 마친가지로 영적 전쟁 중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한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재차 확증하셨다. (수 1:3) 이 뿐만 아니라, "네 평생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수 1:5)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는가? 사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다는 사실이다. 눈 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한다. 결국 우리는 매번 약점을 파고 드는 간교한 사탄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좇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자.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 (마 28:20)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의 모든 중에 계시는가?'의 여부이다. 지금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 권력, 명예,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을 버리자. (히 13:5~6)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말자. 오직 주님의 약속,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자. 제 아무리 강한 세상의 힘이 내 앞을 가로 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사 41:10,13)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토록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 것을 체험하였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 이제 여호수아는 끝난 같았던 가나안정복을 끝낸 뒤에 하나님께 약속이 진실인 것을 간증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위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수 21:43~45) 평생 여호수아는 약속 위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자 다 이루었다. (요 19:30)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라.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 승리가 무엇인지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증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예수님이 대담하시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 믿음의 길을 거쳐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근심할 때가 된다. 전통과 약속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영적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자. 악속 위에 서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36

* 매우 필요세력기(요한계 4:6)에서 생생한 말씀들 들을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6:53~56)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로"(막 6:53~54)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온 지역에 퍼졌다.(막 5:27~28,34)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온 사람들을 만나주셨다.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믿음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바로 우리,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예수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순간 근심과 걱정 속에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믿음을 만들고 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보다는 온전 자리에 관한, 자신을 위한 성경으로 만들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구한다. 이 패역함을 회개하자. "도둑이 있는 것은 도둑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 이 영원한 은혼을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러나 지체하지 말고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라 가까이 게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 너그로움에 응하시니라"(사 55:6~7) 기독교의 필박자인 바울이 회개하였을 때 그는 복음의 도구로 그대 사용되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전하며 순한 필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다.(고후 11장) 바울이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서 메고 나아오나"(막 6:55)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께로 나아라.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막 6:56)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요일 5:19) 곧 영원한 사망뿐이다.(롬 3:10,18)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천국복음의 소식을 하셨다.(롬 6:23) 좀 더 경건하게 율법으로 나아가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초점은 잃어버린 자, 죄인의 구원이었다.(막 2:17)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막 9:23) 사탄을 믿음으로 열망하자. (요 1:12) 예수님은 당시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요 6:37)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자. (요 14:14)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전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대하 7:14) 사탄의 하나님인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다. 갈보리에 십자가를 세우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대담하시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년3부



안석현(장로, 장년3부장)

장년3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52명의 교사들이 모여 경건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온 밤을 해매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적 재충전을 하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년3부집회는 제1교육관 307호에서 12시 15분부터 13시 30분까지 진행 됩니다. 특별히 집회 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드러지는 찬양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고 찬양의 하모니와 같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그날 정도로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연중계획으로는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성경일독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 하시는 말씀(히 4:12)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별찬송가부르기회를 통하여 반별전교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나누며, 성탄찬양을 통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귀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진행되는 초청전도집회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특별히 한 가족이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은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제 21:3~4)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 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하오니 우리의 걸 사람은 넘어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전 4:16) 장년3부는 60대 성도들로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은 가족연합예배일이다. 우리반 아이들 중 부모님과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출석하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 중에는 올해 등반한 형준이가 있다. 형준이는 지난 봄에 있었던 새친구 초청전도주일에 초등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전도한 아이이다.

"매년 하는 것이고 매년 가는 학교 앞 전도이기에 더 이상 전도할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고하는 어린이들과 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님들, 전도하는 선생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학교 앞으로 갔다. 그런 와중에 놀이터에서 엄마와 같이 온 형준

이가 있었다. 초등부 선생님들과 전도과장 선생님이 어머니와 형준이에게 교회 갈 것을 권하였다. "저희 집은 불교라 저는 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 멀리 가지 않나, 아이 혼자 보내기가 좀그래요." "시간에 맞추어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어디로 데리러 가면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형준이와 우리의 만남은 형준이가 신원반에서 등반하기까지 매주 데리러 오고 갔던 황선생님과 우리반에 등반한 뒤 차가 없는 나를 대신하여 매주 데리러 가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데리러 준 소년부 김선생님의 도움으로 형준이는 5월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 후에 딱 2번만 빠지고 계속 열심히 잘 다닌다. 아파 보여 늦잠자라고 안개 온 엄마에게 "왜 교회 가야 하는데 안 깨웠나?" 고 할 정도이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 하고 외워 부르는 형준이....., 사랑스러운 형준이를 볼때마다 학교 앞 전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고 무시할 수 있었던, 잃어버린, 찾아야 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어디선가에는 '왜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였다. 이제 다음 주일(21일)은 새생명초청 전도주일이다. 남은 기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새생명초청 전도주일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형준아,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예배드리지만 다음 번 아니면 그 다음 번 가족연합예배에는 형준이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랑 온가족이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꼭 기도하고 소망해보자!"

오미리(교사, 초등부)

*제1교육위원회(영아부~중등3부)는 9월 21일(주일)

새생명초청 전도주일로 정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나팔이 울리리라 (THE TRUMPET SHALL SOUND)

이 곡은 헨델(G.F.Ha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나오는 베이스 독창곡으로, 그는 이 대곡을 실의와 좌절이 거듭된 끝에 1741년 8월 22일에 시작해서 24일 만에 거의 식음을 잊은 채 작곡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메시아>는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은 제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있다. 이 곡은 서창(Recitativo)과 영창(Aria)로 이루어지는데 서창은 고린도전서 15:15 말씀에 근거한다.

전주 부분(1~28마디)에 오케스트라와 나팔소리가 합창제 시작되고 이어 독창을 할 때 마치 트럼펫소리가 나는 것 같다. 곡 중에 우리가 써지 않고 변화하는 모음이 연속된 음계(Scale)로 이어지고 있는데 58~68, 101~108, 130~138마디를 찬양할 때마다 신비롭게 느껴진다. 이어서 "써줄 것이 써지 않음을, 죽은 것이 죽지 않음을 일으키라."(156~214마디)는 부분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더해 주고 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모든 성도들이 흥연히 변화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가! 부르는 방법은 214마디 후 'Dal 8'에서 29마디 '8'로 가서 156마디 Fine에서 마치면 된다.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보급한 찬양CD를 통해 많이 듣고 연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요 11:25)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확신과 감격으로 찬양하기 원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최선의 찬양을 드릴 것을 기대한다.

서준성(한수집사, 찬양위원장)

♡ 새 가 곡 을 찬 양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48	하윤미	청년1부	이성일(23)	
1649	이서진	15	청년2부	김진호(15)
1650	정진수	16	소망부	박관수(6)
1651	김금례	16	소망부	박관수(6)
1652	송란심	16	청년2부	박관수(6)
1653	정성민	16	청년2부	박관수(6)
1654	송희경	16	청년1부	박관수(6)
1655	송원호	16	청년1부	박관수(6)
1656	이성열	16	청년2부	
1657	서인석	19	청년2부	장재석(20)
1658	박지원	14	초등부	김근아(11)
1659	신병문	8	소망부	박관수(6)
1660	양지혜	13	유치부	이왕진(13)
1661	이영숙	21	청년2부	양병진(22)
1662	매두카미리	25	외선부	
1663	박지현	10	청년2부	
1664	황보예환	20	대학부	이화숙(20)
1665	김윤서	6	청년3부	이기봉(6)
1666	문이진	6	청년3부	이종심(6)
1667	김덕호	9	고등부	홍순진(2)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들의 함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21)

순 조

기 도

많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이번 선교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집사님들이 벌써 일이나 한미음과 한뫼으로 복음전파의 중요한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는 직장과 가정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날씨를 걱정하고, 오고 가는 길을 걱정하고, 속소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걱정하였으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내려놓게 하였으며, 우리는 “가나나”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선교지로서 우리는 매순간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교기도를 하던 운전기사님과 함께 열결기도문과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아멘.” 하던 어린 학생과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전했고,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며,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광민(안수집사, 21교구 4지역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의 군사로 파송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딪힌 현실은 달랐다. 선교 현장에서 겨우 몇 가정에만 복음을 전한 뒤 바로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다. 우리가 여권 대신 사본을 가지고 다닌 것과 ‘한국 농촌 탐방단’이라는 명패를 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경찰서에서 2~3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약간의 벌금을 내고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했다.

다음날 우린 첫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경찰에 다시 잡히고 말았다. 운전기사가 면허증과 신분증을 빼앗겼고, 서류를 받아오면서 낙담하는 모습에 ‘이번에 무언가 크게 걸렸구나?’ 생각하며 호텔로 돌아와 기도하느라 달달달 수밖에 없었다.

여러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예뻐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어린 아이를 안고 나와 함께 기도하였던 여인이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 복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백성들이 주의 은총 입은 자들이 되며 주를 찬송하게 해 달라고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했다.

오영민(집사, 10교구 5지역팀)

사역지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린 후 첫날 사역을 위하여 선교지 주변의 마을을 정탐하면서 이곳 마을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모습과 우상에 매어있는 현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자유로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을 사방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실감하였다.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땅에서의 단일한 신앙생활보다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좀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온 이 땅의 영혼들에게 지속적인 기도로서 후원하며 주님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한다.

김영환(안수집사, 20교구 4지역팀)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이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들어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단기선교에 온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 영광을 잃어지고 열심부인 복음전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선교지는 기온차가 너무 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어렵고 하나님과 접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욱 주님께 감사했다.

선교지의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착했다. 이곳 사람들 중에 90%가 불교신자였다. 그래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힘이 들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밝고 착했다. 전도지를 받기 싫어 하는 사람은 보았지만 구박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대부분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고맙다.” “알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특히 아이들은 전도지를 주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찬양할 때에도 잘 따라하고 우리가 한 지역을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도 아이들을 잘 가리고 손을 흔들며 주었다. 비록 많은 안 통했지만 그들의 표정이나 눈짓을 보면 다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전도를 하면서 ‘왜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찍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미 떠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들어 보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민준서(학생, 중등2부 2팀)

사역지는 무더웠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오후 늦게 도착한 우리는 속소를 정하고 바로 사역에 임하였다. 처음 가정을 방문하여 팀원들은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우리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아무리 따라라고 해도, 알아 보라고 해도 서로가 답답한 가운데 어쩔할 바를 몰랐다. 할미네게 말씀을 전하자 그분은 부러워서 미소로 웃기만 하였다. 안타까워 나는 그분을 꼭 껴안고 우리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팀원들은 평가회시간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주님께 기도하였다.

다음 날 오전사역 때 우리가 방문한 마을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했고, 너무마다 과일이 풍성한 조용한 마을이었다. 방문했던 가정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주님은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마을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이다. 팀원들은 자신을 갖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방문한 마을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며 그들의 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였다. 팀원들은 마지막 사역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방문하는 마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사용되어졌다. 팀원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님의 소리에만 경청하였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신 주님, 이제는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 나라에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진혜(집사, 9교구 6지역팀)

예수님의 마음

이번 선교가 첫 선교였다. 그래서였을까, 파송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가졌을 때에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다. 파송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 중등부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공항까지 갔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아해보니 “그것도 선교의 준비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항에 도착해서 모든 수속절차를 밟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에는 마냥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교지에 늦게 도착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나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셨다.

둘째 날 선교현장으로 가는 중간에 내려서 오전사역을 했다. 세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 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집사님이 처음 방문했던 집에 성경책을 주고 가져와 하셔서 다시 그 집으로 갔을 때 온 가족들은 우리를 반겨 주었다. 나는 성경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나왔다. 대문을 나서서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책을 펴고 있는 아빠 주위로 가족이 둥글게 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과 율동을 가르쳐 주면서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 오후에는 사립주변마물로 사역하러 갔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확실히 달랐다. 다른 동네와 달리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표정이 썩~ 변하였다. 다른 동네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으나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네째 날에는 2인 1조로 사역을 했는데, 3인 1조로 할 때보다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었다. 친구와 한 조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발견하고 대문까지 나오셨다.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다. 계속 무언가를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는 할머니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였다. 결국 한국어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왔고, 그 순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영어를 말할 수 있어서 현지어와 영어를 섞이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부분에서 여자가 아이가 “왜?”라고 되쳤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했다. 나에게는 너무 당연하던 사실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김성혜(학생, 고등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일(월)-9월 9일(화)	2교구 3지역	김대용
9월 1일(월)-9월 9일(화)	15교구 4지역	문희식
9월 2일(화)-9월 10일(수)	9교구 2지역	강홍선
9월 2일(화)-9월 10일(수)	권사회 1팀	이경현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8일(월)-9월 16일(화)	11교구 5지역	김영록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5일(월)-9월 23일(화)	16교구 6지역	박성명
9월 16일(화)-9월 24일(수)	17교구 8지역	박천옥
9월 18일(목)-9월 26일(금)	8교구 1지역	이기욱

한 영혼을 위해 한 마음으로!

18교구 2지역 · 대학부 · 덕소교회 연합팀



☞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팀원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윤예균 안수진서

☞ 현지인들이 찬양과 율동을 즐거워 마음으로 따라하는 모습에서 영혼을 만나기 힘든 이곳으로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경찰관을 통하여 주님은 초원지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남정숙 목사

☞ 총현교회의 단기선교교육과 선교지에서의 전도를 통해 얻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미약하고 부족하나 덕소지역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이홍영 집사(덕소교회)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현규 타고장로

☞ 감사함이 가득한 선교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오인경 학생

☞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 선교를 준비하

면서라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하 않았다. 내가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게도 내가 하려고 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 사랑하라”고……. 김은국 학생

☞ 고구식구들과 대학부학생, 그리고 덕소교회식구들과 함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때 한 마음이었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충만하였다. 김민정 장로

☞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만났을 때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기쁨이 충만했다. 부족한 나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택하신 백성을 보내 주신 것만 같았다. 안설희 집사

☞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피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심하는 시간이었다. 전경자 권사

☞ 선교지에 도착하니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겼다. 고생할 각오는 했지만 속소, 물, 화장실, 음식 등 모든 게 어려웠다. 하지만 선교는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김영은 집사

9월의 충현 기도의 창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A detailed map of the Gyeongju Historic Area, showing various landmarks and churches. The map includes labels for locations such as Haeinsa Temple, Gyeongju National Museum, Gyeongju Cathedral, and other historical sites. A compass rose indicates North.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으로

노광현 광주시청	이 훈 매곡위원회	김종구 충남도의원	이정 충남도의원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현양위원회	임무현 제2지구위원장	전진 충청북도의원
김단웅 달북위원장	김기하 소치위원회	원우철 귀환위원회	이학 이학의원
황민하 제1지구위원장	김구형 제2지구위원장	홍득억 제3지구위원장	심영환 심영환의원
이대식 청년1부장	박종구 김사평위원회	권명옥 청희위원회	조현 제4지구위원장
김영달 공로3부장	이선호 기동전투부장	최지훈 수출전투부장	이영 19대
	김민호 한신소		

정경철 55.9.29	전광우 전국학	조계종 55.12.29	정도 55.12.29
이달호 56.1.1	장철원A 제2부원	김승곤 장사부원	함정 56.1.1
정철현 56.1.1	정수현 장사부원	김건근 전국학원	김경 56.1.1
임창식 56.1.1	전학래 충남부원	김신국 12.구	10.2
서영식 56.3.31	구재환 제3부원	송두식 제1교구원	신소 56.3.31
박상대 56.3.31	강규식 교구장	신창철 신교구원	2.2
이상식 56.3.31	오순도 원외부원	양기수 4.구	1.2
김연태 56.3.31	김종홍 영외부원	정철원B 충남부원	유미 56.3.31
이성식 56.3.31	장철규 전국학	이보신 교동부원	이성 56.3.31
조준민 56.3.31			

오	차신득	박민기	정진호
은	신경호	이재민	고우원
윤	전국열	하종철	안치원
영	기하영	5급	2급
수	안동현	이재영	최승희
영	이해범	12급	13급
진	박덕양	강명구	김철규
인	11급	11급	8급
환	배준식	김한수	최성재
실장	정경인(4급)	14급	22급
부	박철구	이광현	강호성
장	92급	16급	21급
부	정기호	최진철	장민권

정	김정환	19.2.2	25.2.2
정	김영환		
주	윤석민	■ 감 도 사 신병식 서명	
국	김종진		
국	19.11.1		
국	전순배	■ 여론조사	김현식
국	20.2.2	윤건	강경
국	유상태	김경진	강득필
국	박우영		20.2.2
국	염복섭	김경희	이복순A
국	7.2.2	강영미	21.2.2
국	김철환	22.2	윤지하
국	이세영	황대문	김정훈
국	19.2.2	13.2	
국	김성호	■ 전일지하차 서순성	
국	5.2.2	■ 전일통차자 김소연	
국		■ 서 순기 송영호	

김익환 3교구	장 훈 4교구	이희식 7교구
정종신 15교구	양재웅 원진국	이성진 6교구
윤수일 10교구	황진섭 20교구	유재진 서울중앙학부
양태선 12교구	유원철 대학부	박정현 2교부
최강권 23교구	박용현 24교구	강원철 9교구
윤요한 15교구	김근영 17교구	박준식 8교구
김창성	이재현	

■ 남정도사 강영기
외선부

홍순애 5교구	이옥주 2교구	김발자 16교구
최문실 12교구	전은희 10교구	김경자 14교구
류진희 18교구	한성임 7교구	임대주 17교구
이복순B 11교구	진영희 19교구	이혜숙 6교구
장옥연 1교구	정원일 23교구	

■ 원심

■ 전심연주자 장연희 노은영

출현동산 평토장 안내

추천도서 펄트작 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현동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방식인 평토장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 충현동산 및 교회사무국(#472, 김병수 집사)



동서울노회 제74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① 목사 고시 청원(강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③ 전도사 고시 청원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⑤ 신학 계속 추천 장래(홍신신대원 재학생)
 전공 영역 : 0000년 00월 00일 ~ 현재까지 | 주소 및 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56 | TEL : 02-0000-0000

• 마감일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수업시간	교과시간: 9월 10일 ~ 11월 26일 (12주)	
수업시간	오전 9:30 ~ 4:00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 307호)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 407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 507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 307호)
교사 양생부	매주일 오후 3:00 ~ 4:30	교과시간: 9월 7일 ~ 11월 23일(12주) 장: 제1교과 301호
헌양대반 양생부	매주일 오후 3:00 ~ 4:30	교과시간: 9월 7일 ~ 11월 23일(12주) 장: 제1교과 401호

*교수진과 학생은 주일 오전 9:30에 개회합니다.

*교육신청은 다음 주일(21일)까지 가능합니다

2008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시: 9월 21일~12월 21일(14주간) 매주일 15:10~16:30 장소: 제2교육관 1층 에비디부실

새벽기도회 (9/15~9/21)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종홍	양태선/정진곤	황진섭/임병준	김완수/양승찬	강명구/이정환	김철규/김정운	최성득/정원임
설 교 본 문	막 7:14-23	골 8:1-11	골 8:12-18	골 9:1-11	골 10:1-12	골 10:13-22	골 11:1-13

예배 담당 (9/17~9/21)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9/17	수요 I	네 하나님 여호와 (신 4:24) 김성관 목사	유재진	표복식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호산나 찬양대)
9/17	수요 II	이 종이 무엇이었나(사하 91-13) 박준식 목사	최정현	서해경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로당 찬양대)
9/19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이성진	예루살렘 찬양대 / 박종용 피파팀과 가족 / 바이올린 이예스디	
9/21	주일 I	베드로의 증언 (행후 1:12-18) 박용현 목사	강효성	강철형	(예배 전 집전양)
9/21	주일 II	베드로의 증언 (행후 1:12-18) 이희식 목사	김성진	원용철	민행의 왕 네 주께서 / (소프라노 조혜민(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9/21	주일 III	베드로의 증언 (행후 1:12-18) 김성관 목사	이경연	이재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 박종우 김예진(한울교회 오케스트라)
9/21	주일 IV	베드로의 증언 (행후 1:12-18) 이재영 목사	양성진	이세영	이와 더불어 저를 경배 하사 외 / 소프라노 구민우(아반떼 찬양대 솔로리스트)
9/21	주일 V	베드로의 증언 (행후 1:12-18) 박정현 목사	이성진	송두진	오 신실하신 주여 / 바이올린 이수아(한빛 오케스트라)
9/21	주일찬양	말할 수 없는 너의 은사 (고후 9:15) 김성관 목사	최종진	남승호	브니엘 중성찬양단 / 찬드라 연주대 . 9곡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일강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기독교연합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 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3:10	배 다 니 홈
장 부	오후 12:15	강 렬 리 홈
장 부	오전 11:00	복건관 지하1층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장인)	제2교육관 1층
다 부	(주) 오전 8:00~오후 6:00 (리) 저녁 7:30~제930	선교관 1층
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홈
인선보부	오전 11:00	아 덴 홈
인선지침	주간교육관	제1교육관 107호
인선인교	주간교육관	충전지 3교

Copyright © 2008 출판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